▌이베로아메리카 제28권 1호 [2026. 6] : 79~113
https://doi.org/10.19058/iberoamerica.2026.6.28.1.79

슈퍼볼 무대 위의 라틴 정체성: 2026년 배드버니 하프타임 공연을 둘러싼 영어, 스페인어 유튜브 댓글 수용 분석

Latin Identity on the Super Bowl Stage: A Reception Analysis of English- and Spanish-Language YouTube Comments on Bad Bunny's 2026 Halftime Show

윤 장 훈*
(Yun, Janghun)

<Abstract>

Bad Bunny's 2026 Super Bowl halftime show became a site of symbolic contestation over Latino representation, Puerto Rican identity, and immigration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Drawing on Martín-Barbero's theory of cultural mediation,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performance was meaningfully constructed in English- and Spanish-language YouTube comments on the NFL's official channel. It analyzes 70,627 English-language and 23,448 Spanish-language top-level comments using BERTopic topic modeling, resonance analysis, and interpretive reading of representative comments. The findings show that English-language comments mainly framed the show as popular entertainment, whereas Spanish-language comments combined appreciation of the performance with the affirmation of pan-Latin identity. Shared performance elements were also interpreted

* 한중남미협회 연구원. Email: yunj814@gmail.com

differently across the two language-based comment spaces. These differences can be interpreted through family everydayness, cultural competence understood as interpretive resources, and recogni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ransnational reception is not reducible to fixed cultural identities but can be differentially articulated through cultural memory, interpretive resources, and the language of recognition in language-based comment spaces.

Key words: Bad Bunny, Super Bowl Halftime Show, Latin identity, cultural mediation, YouTube comment reception

Ⅰ. 서론

2026년 2월 8일 열린 슈퍼볼 LX 하프타임 쇼는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 무대에서 라틴 정체성과 문화적 상징성이 폭발적으로 주목받은 사례였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아티스트 배드버니(Bad Bunny)는 이 공연에서 슈퍼볼 역사상 최초로 오직 스페인어로만 무대를 구성하였고, 푸에르토리코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기억, 문화적 자긍심, 정치적 상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공연은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 무대 위에서 라틴성을 핵심 의제로 끌어올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한편, 이 공연은 문화적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뜨거운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까지 이어졌다. 공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해당 공연을 "너무나 끔찍하다"(absolutely terrible)라고 비판하였고, 보수 단체 Turning Point USA는 스페인어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 반발하며 "All-American Halftime Show"를 동 시간대에 별도로 기획하기도 했다(Reuters 2026b). 배드버니 역시 공연 직전 그래미 수상 소감에서 "ICE out"을 외치며

미국의 이민 단속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으며(Reuters 2026a), 이러한 발언은 하프타임 쇼를 둘러싼 논쟁이 라틴계 문화의 재현을 넘어 미국 사회 내 라틴계 이민을 둘러싼 갈등과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정치적 논쟁은 공연이 푸에르토리코의 역사적 기억과 라틴 공동체의 일상성을 환기하는 장면들로 구성되었다는 점과도 맞물려 있었다. 무대에는 사탕수수밭을 연상시키는 배경과 전봇대 장면이 등장했고, 이는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적 경제 구조와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지속된 전력 위기, 정전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또한 웨딩 장면과 의자에 잠든 아이의 모습은 라틴 가족문화와 공동체적 일상성을 환기하는 요소로 배치되었다. 공연 후반부에는 "God Bless America"라는 구호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호명되었고, Ricky Martin이 부른 가사와 "El Apagón"의 무대 요소는 푸에르토리코의 주권, 식민성, 문화적 진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장면들은 이후 유튜브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되었다.

공연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프로풋볼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NFL)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공연 후 30일간 총 214,241개의 댓글이 게시되었다. 유튜브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용자들이 동일한 콘텐츠에 거의 동시적으로 접근하고 반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가능성이 곧 동일한 방식의 문화적 수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Baek 2015). 특히 배드버니의 공연은 미국 NFL이 주관하는 영어 중심의 미디어 이벤트에서 스페인어와 라틴 문화 코드를 전면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영어 및 스페인어 댓글의 비교는 공연이 서로 다른 언어 댓글 공간에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분석 축이 된다. 다만 연구에서 영어 댓글과 스페인어 댓글은 작성자의 국가, 민족 등의 정체성을 직접 대변하는 범주가 아니라, 댓글 작성 언어에 따라 구성된 두

개의 언어적 수용 공간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는 동일한 퍼포먼스가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서 어떠한 의미화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가 형성되는 문화적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문화 텍스트 수용 연구에서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인코딩/디코딩 모델은 동일한 텍스트가 수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Hall 1980). 그러나 홀의 모델만으로는 어떤 문화적 조건 속에서 차이가 형성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배드버니 공연에 대한 기존의 해석적 연구들(Pérez-Rufí 2026; Santana et al. 2026)은 공연의 기호학적 의미, 담론적 구성, 정치적 상징성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공연 텍스트와 담론의 해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용자들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의미를 생산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를 대체하기보다, 유튜브 댓글이라는 수용자 반응 자료를 분석해 배드버니 공연의 문화정치적 의미가 디지털 수용 공간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석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발전한 마르틴-바르베로(Martín-Barbero)의 문화적 매개 이론을 참조한다. 마르틴-바르베로(1987)는 수용자가 텍스트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작동하는 문화적 매트릭스(matrices culturales)가 수용을 매개한다고 보았으며, 가족적 일상성(cotidianidad familiar), 문화적 역량(competencia cultural), 인정(reconocimiento)과 같은 개념을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문화적 역량은 특정 문화적 기호를 해독할 때 동원되는 문화적 지식 자원과 해석 문법을 의미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매개 개념이 디지

털 플랫폼의 초국적 수용 양상을 해석하는 데에도 유효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연구 목적이 댓글 작성자의 문화 정체성이나 문화적 매개의 형성 과정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토픽 구조, 대표 발화, 공명도(resonance) 패턴을 통해 문화적 매개가 댓글 담론에 남긴 거시적 흔적을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NFL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배드버니의 2026년 슈퍼볼 공연 관련 댓글 가운데 답글(reply comments)을 제외한 원댓글(top-level comments) 149,402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을 중심으로 BERTopic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각 댓글 집합의 토픽 구조를 도출하고, 토픽 빈도와 공명도(resonance)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어떤 의미화가 널리 분포했는지와 각 언어 댓글 공간 내부에서 어떤 의미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응을 얻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도출된 토픽의 대표 댓글을 질적으로 검토해 각 언어 댓글 공간에서 나타나는 의미화 방식의 차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적과 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마르틴-바르베로의 문화적 매개 개념을 통해 해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설정하였다.

(1) 배드버니의 슈퍼볼 공연은 영어와 스페인어 유튜브 댓글 공간에서 각각 어떻게 의미화되며, 토픽 빈도와 각 언어 내부의 공명도는 어떠한 수용 패턴을 보여주는가?
(2) 이러한 수용 양상의 차이는 마르틴-바르베로의 문화적 매개 이론, 특히 가족적 일상성, 문화적 해석 자원, 인정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두 질문의 핵심은 미국의 핵심 미디어 이벤트인 슈퍼볼 무대에서 재현된 라틴 정체성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아울러 같은 공연이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서 서로 다르게 수용되는 양상을 비교하되, 그 차이를 작성자의 고정된 문화 정체성의 직접적 증거로 환원하지 않고, 언어별 댓글 공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의미화 패턴과 문화적 매개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마르틴-바르베로의 문화적 매개 이론과 수용 분석

문화 텍스트의 수용이 생산자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수용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관점은 홀(Hall 1980)의 인코딩/디코딩 모델에 의해 체계화되면서 수용 연구의 기본 전제가 되어 왔다. 홀의 모델이 수용의 차이를 분류하는 틀을 제공하였다면, 마르틴-바르베로(Martín-Barbero 1987)는 차이가 형성되는 문화적 조건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초점을 매체(medios)에서 매개(mediaciones)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르틴-바르베로의 핵심 명제는 문화 텍스트의 수용이 텍스트와 수용자의 직접적 만남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수용자가 텍스트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문화적 매트릭스에 의해 매개된다는 데 있다(Martín-Barbero 1987, 229-232). 이러한 문제의식은 당시 라틴아메리카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지배하던 두 가지 경향, 매체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집중하는 미국식 효과 연구와 매체를 지배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파악하는 종속 이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그가 보기에 이 두 접근은 모두 수용자를

수동적 존재로 전제하고 있었으며, 수용 과정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동일한 텍스트가 배경이 다른 수용자 집단에게 다르게 의미화되는 것은 개인적 취향이나 의미화 방식의 차이만이 아닌, 그들이 속한 문화적 매트릭스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마르틴-바르베로는 라틴아메리카 텔레비전 수용을 설명하기 위해 가족적 일상성(cotidianidad familiar), 사회적 시간성(temporalidad social), 문화적 역량(competencia cultural)이라는 세 가지 매개의 장소를 제시하였다(Martín-Barbero 1987, 233-241).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가족적 일상성이다. 이 개념은 원래 라틴아메리카의 텔레비전 수용, 특히 텔레노벨라가 가족적 생활 세계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가족적 일상성이란 용어는 혈연 가족만을 뜻하지 않으며, 가족관계, 세대적 기억, 공동체적 친숙함 속에서 형성된 일상 속 감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각은 수용자가 미디어 속 장면을 낯선 기호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경험과 연결해 받아들이게 한다. 따라서 가족적 일상성은 특정 장면이 왜 어떤 수용자에게는 "우리 삶과 닮은 것"으로 느껴지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문화적 역량은 수용자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동원하는 문화적 지식 자원과 해석 문법을 의미한다. 마르틴-바르베로에게 이 역량은 개인의 지식이나 취향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계급, 민족, 지역문화, 도시적 혼종성 속에서 형성된 서사, 몸짓, 청각의 기억과 같은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구성된다(Martín-Barbero 1987, 240-241). 마르틴-바르베로는 이러한 역량이 기억에서 살아가는(vive de la memoria) 동시에 현재의 열망과 주체성을 구성하는 상상계(imaginarios actuales)로부터도 양분을 받는다고 보았다(Martín-Barbero 1987, 247). 여기서 기억은 개인의 사적인 회상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쌓여온 문화적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상계는 축적된 기억이 현재의 욕망, 자부심, 정체성의 표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매개로 작동하며, 동일한 기표나 장면이 왜 어떤 집단에게는 단순한 이미지로, 다른 집단에게는 역사적 기억과 현재적 열망이 결합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시간성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반복적 편성이 사람들의 일상적 수용 리듬과 맞물리는 방식을 가리킨다. 다만 이 개념은 텔레비전의 편성 체계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 댓글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마르틴-바르베로가 제시한 세 가지 매개의 장소 가운데 가족적 일상성과, 문화적 역량으로 개념화된 문화적 해석 자원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인정 또는 재인식(reconocimiento)의 개념에도 주목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세 가지 매개와 같은 범주의 개념이라기보다, 수용자가 텍스트와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마르틴-바르베로는『매체에서 매개로』의 서론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단순한 지식(conocimientos)의 문제가 아니라 재인식(re-conocimiento)의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Martín-Barbero 1987, 10). 이러한 의미에서 재인식으로서의 인정은 공동체적 주체가 텍스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과 관련된다(Martín-Barbero 1987, 243). 이 개념을 통해 배드버니의 공연을 둘러싼 댓글 공간에서 라틴 정체성, 푸에르토리코 정체성, 범라틴적 소속감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언어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해석하고자 한다.

한편, 매개 개념은 이후 민족지학적 연구와 결합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 틀로 발전하였다. Martín-Barbero and Muñoz(1992)는 콜롬비아 텔레노벨라의 장르적 문법과 수용자의 일상적 해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Lopes et al.(2002)는 브라질 텔레노벨라 수용의 매개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연구자가 수용자의 일상적 삶 속으로 들어가 특정 장면에 대한 반

응이 가족 관계, 세대적 기억, 지역적 맥락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관찰했다는 점에 있다. 민족지학적 수용 연구는 매개가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세계 속에서 형성되고 드러나는 과정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후 마르틴-바르베로(Martín-Barbero 2002)는 기술을 소통과 의미 형성이 이루어지는 조건 자체로 이해하였다. 그는 미디어와 정보 기술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생태계(ecosistema comunicativo)를 형성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매개 이론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문제의식은 Scolari(2015)의 하이퍼매개(hipermediaciones) 논의로 이어졌다. Scolari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매개가 더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았고, Lopes(2018)는 마르틴-바르베로의 사상을 고유한 인식론과 방법론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재정립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매개 이론을 디지털 플랫폼의 수용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를 바탕으로 마르틴-바르베로의 매개 이론을 디지털 플랫폼 댓글 분석에 적용하되,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한다. BERTopic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되는 양적 결과는 매개의 형성 과정 자체를 직접 보여주지 않으며, 개별 수용자의 삶 속에서 매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관찰하지 않는다. 연구에서 관찰하는 것은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토픽의 빈도, 대표 발화, 공명도의 거시적 분포이다. 이는 문화적 매개의 직접적 증거라기보다, 댓글 담론에 남은 반복적 의미화의 흔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가족적 일상성의 개념을 통해 특정 장면이 일상적 기억과 연결되는 방식을, 문화적 역량으로 개념화된 문화적 해석 자원의 개념을 통해 특정 기호가 어떤 기억과 지식의 체계 속에서 해독되는지를, 인정 또는 재인식(reconocimiento)의 개념을 통해 댓글 공간에서 공동체적

소속감이 언어적으로 수행되는 양상을 해석한다. 이때 이론 적용의 목적은 매개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지 않고, 대규모 댓글 텍스트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의미화 패턴을 매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민족지학적 접근이 미시적 매개 과정을 포착하는 데 강점을 갖는다면, 계량 텍스트 분석은 대규모 디지털 댓글에 나타난 수용 패턴을 비교하고 이를 문화적 매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보완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위치

배드버니의 2026년 슈퍼볼 공연을 둘러싼 수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연의 문화정치적 맥락과 기존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무대가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적 실천이 경합하는 문화정치적 장임을 밝혀왔다. 예를 들어 Serazio(2013)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미국 사회의 국가적 신화와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으며, Monroe(2021)는 비욘세의 2016년 공연을 통해 스포츠 이벤트 무대가 소수자 집단의 정치적 표현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라티노 재현과 관련한 중요한 선례는 2020년 마이애미에서 열린 슈퍼볼 LIV 하프타임 쇼이다. 제니퍼 로페스(Jennifer Lopez)는 미국 국기가 디자인된 망토를 입고 등장한 뒤 이를 뒤집어 푸에르토리코 국기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는 그녀가 미국인이자 푸에르토리코인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되었다(박은영·박정원 2022). 이러한 논의 속에서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오락 무대를 넘어 국가 정체성, 문화적 자긍심이 교차하는 문화정치적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푸에르토리코 정체성과 라티노 재현에 관한 연구들은 배드버니 공연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의 지배 아래 편입되었고, 오늘날에도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면서도 대통령 선거 본선 투표권과 연방의회에서의 표결권 있는 대표권이 제한되는 모순적 지위에 놓여 있다(Grosfoguel 2003; Meléndez and Meléndez 1993). 사탕수수 중심의 경제 체제는 이러한 식민주의적 종속 구조를 상징하는 역사적 장치였으며(Dietz 1986),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의 전력 위기와 LUMA Energy 민영화 논란은 인프라와 주권을 둘러싼 종속성의 문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uters 2025).

국내 연구에서도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라티노 재현의 정치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은아(2016)는 뉴욕과 플로리다의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를 분석하면서, 이들이 '움직이는 국가(nation on the move)' 속에서 법적 시민권과 구분되는 '문화적 국적(cultural citizenship)'을 구성해 왔음을 논의하였다. 이는 국적이 일종의 법적 지위임에 동시에,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적 상징, 기억, 언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실천임을 보여주었다. 박은영·박정원(2022)은 트럼프 시대 라티노 재현의 정치를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2021) 분석으로 검토하면서, 라티노 공동체가 '국민이자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위치 속에서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존의 상상력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배드버니의 공연을 식민주의 역사와 현재의 이민 정치가 결합된 문화적 텍스트로 읽어낼 수 있는 맥락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배드버니와 라틴 대중음악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들은 음악이 정체성 정치와 저항적 실천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왔다. Pacini Hernandez(2010)의 경우 라틴 대중음악이 미국 주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탈맥락화가 진행되면서도, 라틴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정치와 저항적 실천이 음악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배드버니의 작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그의 노래들이 푸에르토리코의 역사적 기억과 디아스포라 정체성, 집합적 저항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호출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흐름은 단행본『P FKN R』(Rivera-Rideau and Díaz 2025)에서 배드버니의 작품 세계를 푸에르토리코 식민성과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으로도 이어졌다. 또한 Barreiro León(2025)은 배드버니의 곡「El Apagón」(정전)을 사례로 문화적 정체성, 식민주의, 젠트리피케이션이 하나의 대중음악 텍스트 안에서 결합되는 양상을 분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배드버니를 음악, 문화, 정치의 교차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학술서도 등장하고 있다(Varas-Díaz et al. 2025). 이러한 연구는 배드버니의 공연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정치 코드를 정체성 정치와 식민성, 디아스포라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연구는 문화 텍스트의 수용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 환경을 제공해 왔다. Burgess and Green(2018)은 유튜브를 참여문화의 플랫폼으로 규정해 댓글이 수용자의 능동적 의미 생산 행위임을 강조하였고, 동일한 콘텐츠가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체계 속에서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양한 주제의 계량 텍스트 분석 연구에서 구체화되어 왔다. 최순욱, 최성인, 이재현(2020)은 BTS 뮤직비디오 댓글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음악 수용을 팬덤의 공동체적 의미 생산으로 재개념화한 바 있고, 안순태, 임유진, 이하나(2020)와 윤호영(2021)은 각각 먹방과 뉴스 채널 댓글을 통해 식행동 담론과 여론의 양극화 현상을 밝혀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지원하는 계량 텍스트 분석 방법론도 함께 발전해 왔다. BERTopic(Grootendorst 2022; Egger and Yu 2022)과 같은 토픽 모델링 기법은 대규모 비정형 텍스트에서 반복되는 의미 구조를 추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디지털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양적 패턴을 해석적 이론 틀과 결합하는 '계산 해석학(computational hermeneutics)'의 접근이 발전해 왔다(Mohr et al. 2013; Edelmann and Mohr 2018). 이는 대규모 텍스트 자

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화 양상을 포착하고, 해석적 개념과 결합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연구와 계량 텍스트 분석의 주류는 여전히 영미권 플랫폼 연구의 전통 위에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의 해석 틀과 결합하여 언어별 댓글 공간에 나타난 초국적 수용 양상을 분석한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슈퍼볼 무대의 정치성, 라틴 정체성의 역사적 맥락, 대중음악의 문화정치, 디지털 수용 연구의 방법론적 가능성 등을 각각 규명해 왔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공연 텍스트의 상징성과 정치성, 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수용 반응의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문화 연구의 이론적 관점과 대규모 댓글 분석을 결합하여 초국적 수용 양상을 해석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마르틴-바르베로의 문화적 매개 이론과 BERTopic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계량 텍스트 분석을 결합해 영어와 스페인어 유튜브 댓글 공간에 나타난 의미화 패턴을 비교하고, 이를 문화적 매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때 본 논문의 목적은 댓글 작성자의 문화 정체성을 직접 식별하거나 언어 차이를 문화 정체성의 차이로 환원하는 데 있지 않으며, 언어별 댓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용 패턴을 통해 문화적 기억, 해석 자원, 인정의 언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Ⅲ. 연구 방법

연구 분석을 위해, NFL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공연 영상의 댓글을 수집하였다(National Football League 2026). 데이터 수집은 Python 환경에서 yt-dlp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2026년 3월 15일에 수행하였다. 공연 직후 형성된 초기 수용 양상을 포착하고자 하였으므로, 공연일인 2026년 2월 8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된 댓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수집된 전체 댓글은 214,241개였으나, 답글(reply comments)은 공연 텍스트에 대한 1차 수용 반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원댓글(top-level comments)만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 대상은 149,402개였다.

언어 분류는 Python의 langdetec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전체 원댓글의 언어 분포는 영어 78,879개(52.8%), 스페인어 26,512개(17.7%), 포르투갈어 6,904개(4.6%), 기타 언어 37,107개(24.8%)로 나타났다. 연구의 핵심 비교축을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 나타난 의미화 패턴의 차이에 두었기 때문에, 두 언어 집합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자 미만의 짧은 댓글은 감탄사, 이모지, 반복 표현의 비중이 높아 토픽 해석에 기여하는 정보량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전처리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URL과 특수문자의 경우는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 제거하였다. 이상의 전처리를 거친 뒤 분석에 활용된 댓글은 영어 70,627개, 스페인어 23,448개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NFL 공식 채널이라는 특정 플랫폼 공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연을 둘러싼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은 짧은 조롱성 댓글, 보수 성향 채널, 타 플랫폼, 혹은 다른 언어권의 디지털 공간에 분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20자 미만 댓글을 제외한 전처리 과정에서 일부 짧은 비판적 반응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 연구에서 확인되는 호평 중심의 토픽 구조는 배드버니 공연 전체 수용의 일반적 분포이기보다, NFL 공식 채널이라는 특정 수용 공간과 연구의 전처리 기준 속에서 관찰된 의미화 패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언어 기반 분류가 작성자의 국가, 민족 정체성이나 문화적 소속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내 라틴계 2세와 3세처럼 라틴아메리카 문화 맥락에 익숙하면서도 영어로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나,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의 댓글이 영어 데이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스페인어 댓글 역시 특정 국가나 단일한 라틴아메리카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영어 댓글과 스페인어 댓글은 수용자의 고정된 문화 정체성을 직접 대변하는 범주가 아니라, 댓글 작성 언어에 따라 구성된 조작적 분석 범주이다. 본 연구는 영어 댓글과 스페인어 댓글이라는 실체적 집단을 비교하기보다,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화 패턴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가장 먼저 토픽 구조 분석을 위해 BERTopic(Grootendorst 2022)을 적용하였다. BERTopic은 BERT 기반 문장 임베딩(sentence embedding)을 활용하여 텍스트 간 의미적 유사성을 계산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군집화와 토픽 추출을 수행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에 비해 짧고 비정형적인 소셜미디어 텍스트에 보다 적합하며, 문맥적 의미를 상대적으로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gger and Yu 2022). 영어 댓글 분석에는 sentence-transformers/all-MiniLM-L6-v2 모델을, 스페인어 댓글 분석에는 sentence-transformers/paraphrase-multilingual-MiniLM-L12-v2 모델을 각각 적용하였다. 불용어 처리는 영어의 경우 scikit-learn의 CountVectorizer에 내장된 영어 불용어 목록을 활용하였고, 스페인어의 경우 분석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직접 구성한 불용어 목록을 적용하였다. 그 외 주요 하이퍼파라미터는 BERTopic의 기본 설정을 유지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원댓글 전체에 적용하였으며, 도출된 각 토픽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상위 키워드, 대표 댓글, 토픽별 빈도 분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적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또한 토픽의 분포와 반응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도 기준의 토픽 비중과 토픽별 평균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한 공명도(resonance)를 함께 산출하였다. 여기서 공명도는 각 토픽에 속한

댓글이 플랫폼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다만 좋아요 수는 댓글 작성자가 아니라 댓글을 접한 불특정 이용자들의 사후적 반응이며, 좋아요를 누른 이용자의 언어나 국가 정체성을 식별할 수 없다. 또한 알고리즘 노출, 댓글 작성 시점, 댓글 언어의 접근성, 이용자 참여 규모 등에 따라 좋아요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 좋아요 수를 두 언어 댓글 공간 사이에서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명도를 언어 간 절대 비교 지표로 사용하기보다, 각 언어 댓글 공간 내부에서 어떤 토픽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응을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지표로 제한하여 해석한다.

정량 분석이 반응의 분포와 상대적 비중을 보여준다면, 대표 댓글의 문맥 검토는 동일한 퍼포먼스 요소가 각 언어 댓글 공간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검토는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서 나타나는 수용의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읽어내고, 이를 문화적 매개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보완적 절차로 활용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FL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수집한 원댓글 149,402개 가운데 영어 및 스페인어 댓글을 추출한 뒤, BERTopic을 적용하여 언어 댓글 집합의 토픽 구조를 도출하였다. 이어 해석적 토픽명을 부여하고 토픽별 출현 비중과 공명도를 산출하였으며, 대표 댓글에 대한 문맥 검토를 통해 각 토픽의 의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화 패턴을 비교하고, 공연이 각 언어 댓글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는지를 마르틴-바르베로의 매개 개념을 통해 해석하고자 하였다.[1)]

---

1)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는 대규모 댓글 자료의 처리와 분석을 위한 코드 작성 보조, 코드 오류 점검, 문장 교정, 표현 정리, 논리 구조 점검에 한하여 보조적으로 활용되었다. 자료 수집, 코드 실행 및 분석 결과의 최종 검증, 결과 해석, 원고의 최종 내용 검토와 연구윤리상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Ⅳ. 분석 결과

1. 수용 구조의 도출: 토픽 구조와 언어별 댓글 공간의 공명도

분석 결과, 영어 원댓글 70,627개에 대한 BERTopic 분석에서는 9개의 유효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특정 토픽에 배정되지 않은 댓글은 10.5%로 나타났다. 스페인어 원댓글 23,448개에 대해서는 9개의 유효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특정 토픽에 배정되지 않은 댓글은 13.1%였다. 각 언어 댓글 집합의 토픽 구조는 <표 1>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1> 영어 댓글 토픽 구조

토픽	토픽명	댓글 수	비율	평균 좋아요
0	공연 전반에 대한 찬사	36,929	52.3%	58.0
1	언어 초월적 감동 및 América 재정의	20,326	28.8%	89.0
2	푸에르토리코 맥락 및 무대 상징 해설	1,754	2.5%	84.5
3	라틴 가족문화 코드 인식	905	1.3%	686.2
4	비라틴계 초국가적 감동	1,016	1.4%	11.4
5	플랫폼 노이즈	426	0.6%	7.8
6	자기 믿음 메시지 수용	926	1.3%	136.3
7	비라틴계의 공감과 연대	400	0.6%	13.2
8	비판적, 부정적 수용	533	0.8%	3.7

<표 2> 스페인어 댓글 토픽 구조

토픽	토픽명	댓글 수	비율	평균 좋아요
0	공연 전반 호평 및 반응	8,851	37.7%	1.3
1	범라틴 정체성과 América 재정의	8,908	38.0%	3.8
2	공연 평가 및 재시청	932	4.0%	1.5
3	플랫폼 경험	417	1.8%	2.3
4	조회수, 바이럴 반응	325	1.4%	2.1
5	라틴 가족문화 인식	277	1.2%	4.8
6	푸에르토리코 정치적 상징	265	1.1%	1.6

7	El Apagón과 문화적 진정성	208	0.9%	0.8
8	주체적 여성·젠더 수용	200	0.9%	0.8

두 언어 댓글 공간의 토픽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상위 토픽의 분포에서 나타난다. 먼저 영어 댓글에서는 공연 전반에 대한 찬사 토픽(토픽 0)이 전체의 52.3%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카메라워크, 세트 디자인, 웨딩 장면, 배드버니의 무대 장악력에 대한 전반적 호평이 이 토픽의 주된 내용이며, 대표 댓글인 "So nice of Bad Bunny to let them play football at his concert"(배드버니가 자기 콘서트에서 미식축구 경기까지 하게 해주다니 정말 친절하다)(좋아요 300,000개)는 공연이 슈퍼볼 경기 자체를 압도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음을 재치있게 표현한 사례이다. 반면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공연 호평 토픽(37.7%)과 범라틴 정체성 토픽(38.0%)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공존하였다. 영어 댓글에서 엔터테인먼트 이벤트에 대한 반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우세 구조가 나타난 것과 달리,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공연에 대한 찬사와 범라틴 정체성의 확인이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공존하는 결과가 확인된다.

토픽별 대표 댓글을 검토한 결과, 두 언어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된 장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는 웨딩 장면이다. 이 장면은 영어 댓글에서는 '라틴 가족문화 코드 인식' 토픽(토픽 3),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라틴 가족문화 인식' 토픽(토픽 5)에서 나타났다. 영어 댓글에서는 의자에서 잠든 아이의 모습을 "The kid sleeping on 3 chairs at the wedding is all of us in the childhood"(결혼식장에서 의자 세 개에 걸쳐 잠든 저 아이는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와 같이 보편적 유년 기억으로 연결하는 반응이 두드러졌다. 반면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El niño que duerme en las 3 sillas es lo más latinoamericano jaja"(의자 세 개에 걸쳐 잠든 저 아이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라틴아메리카적인 장면이다)와 같

이 동일 장면을 라틴아메리카적 일상성의 표지로 명명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즉, 같은 시각적 요소가 영어 댓글에서는 보편적 유년 기억이나 히스패닉 가족문화에 대한 발견으로,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적 일상성의 확인으로 의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는 "아메리카(América)" 호명 장면이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이 장면은 영어 댓글의 '언어 초월적 감동 및 아메리카 재정의' 토픽(토픽 1)과 스페인어 댓글의 '범라틴 정체성과 아메리카 재정의' 토픽(토픽 1)을 중심으로 각각 나타났다. 공연 마지막 순간에 배드버니가 "God Bless America"를 외친 뒤 아메리카 대륙 전체 국가를 열거하는 장면은 두 언어 댓글 모두에서 강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영어 댓글에서는 이 장면이 미국 중심의 "아메리카" 용법에 대한 교정 요청으로 의미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Dude… when he said 'God Bless America' and named all American countries, a very much needed reminder that America is a WHOLE continent NOT. ONLY. USA"(베니토가 'God Bless America'라고 말한 뒤 모든 아메리카 국가를 호명한 것은, 아메리카가 미국만이 아니라 대륙 전체라는 필요한 환기였다)(좋아요 224,000개)나 "He giving the U.S. a free geography class. Thanks Benito"(미국에 공짜로 지리 수업을 해주고 있네. 고마워, 베니토)(좋아요 187,000개)와 같은 발화는 영어 댓글에서 이 장면을 통해 'America'를 미국만을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관습이 문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동일 장면이 라틴성이라는 공유된 정체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God bless America, Chile, Argentina, Uruguay, Paraguay…"와 같이 공연에서 국가가 호명된 것을 국가명 뒤에 국기 이모지와 함께 재현하는 댓글(좋아요 6,000개)이 관련 토픽에서 가장 높은 공명도를 기록하였으며, 유사한 국가 나열형 댓글이 반복적으로 출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Ojalá que este show marque un antes y un después, y ayude a ver a AMÉRICA como lo que es, un continente y no solo un país"(이 공연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 아메리카를 하나의 나라가 아닌 대륙으로 보게 해주기를)(좋아요 193개)과 같은 반응은 '아메리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소망하고 범라틴적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로 의미화되었다.

세 번째는 공연의 정치적 맥락화 방식이다. 영어 댓글에서는 '푸에르토리코 맥락 및 무대 상징 해설' 토픽(토픽 2)을 중심으로, 공연 속 전봇대 등반 장면과 사탕수수밭 등 무대 요소를 푸에르토리코의 식민 경험 및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의 전력 위기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발화가 두드러졌다. "10:12 The line workers got me!!!! For people who don't know PR has an old and extremely fragile power grid…"(라인 노동자들이 마음에 와닿았다. 푸에르토리코는 오래되고 매우 취약한 전력망을 가지고 있고…)(좋아요 21,000개)와 "If u didn't know: the utility poles Bad Bunny climbed on while performing 'El Apagón'…"(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배드버니가 'El Apagón' 공연 중 등반한 전봇대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빈번한 정전을 강조한다)(좋아요 17,000개)는 영어 댓글 공간에서 무대 상징을 푸에르토리코의 구조적 현실과 연결해 해독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둘러싼 논쟁과 연결한 발화는 토픽 0과 토픽 1 등에서 분산적으로 나타났다. "The fact that ICE is putting children in detention centres and the NFL half time show is BAD BUNNY, Puerto Rican LEGEND SINGING IN Spanish is the only thing giving me hope this week"(ICE가 아이들을 구금시설에 가두고 있는 와중에, 푸에르토리코 출신 레전드 배드버니가 NFL 하프타임에서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것이 이번 주 유일한 희망이다)(좋아요 174개)와 같은 반응이 대표적이다.

반면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공연의 정치성이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주의 역사와 라틴아메리카가 공유하는 구조적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푸에르토리코 정치적 상징' 토픽(토픽 6)에서는 Ricky Martin이 부른 "Quieren quitarme el río y también la playa... No, no suelte' la bandera ni olvide' el lelolai. Que no quiero que hagan contigo lo que le pasó a Hawái"(나의 강도

해변도 빼앗으려 한다... 깃발을 놓지 말고 lelolai를 잊지 말아라. 너에게도 하와이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좋아요 115개) 가사를 인용한 댓글이 가장 강한 공명을 보였으며, "9:55 el momento mas político del concierto. Latinoamerica decimos NO QUIERO QUE HAGAN CONTIGO LO QUE LE PASÓ A HAWAII"(9:55, 공연에서 가장 정치적인 순간. 라틴아메리카는 너에게도 하와이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좋아요 4개)와 같이 이 가사를 명시적인 정치 메시지로 해독하는 발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댓글 내에서 공연의 정치성이 무대 상징을 통한 푸에르토리코 식민 경험의 해설과 이민정책 논쟁이라는 두 갈래로 분산된 반면,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주의 역사와 라틴아메리카가 공유하는 경험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보다 일관되게 의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토픽의 의미 내용뿐만 아니라, 각 언어 댓글 공간 내부에서 특정 토픽이 어느 정도의 반응을 얻었는가라는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표 3>은 핵심 수용 유형의 빈도와 좋아요 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언어별 댓글의 핵심 수용 유형과 내부 공명도 분포

수용 유형	영어 댓글 (비율/좋아요 평균/중앙값/최댓값)	스페인어 댓글 (비율/좋아요 평균/중앙값/최댓값)
주요 수용	공연 찬사 (52.3% / 58.0 / 1 / 300,000)	범라틴 정체성 (38.0% / 3.8 / 0 / 6,000) 공연 호평 (37.7% / 1.3 / 0 / 627)
문화적 공명	라틴 가족문화 (1.3% / 686.2 / 0 / 204,000)	라틴 가족문화 (1.2% / 4.8 / 0 / 263)
정치적 수용	푸에르토리코 맥락 해설 (2.5% / 84.5 / 0 / 29,000)	푸에르토리코 정치 상징 (1.1% / 1.6 / 0 / 115)

주: 비율은 각 언어 댓글 집합의 전체 분석 댓글 중 해당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평균·중앙값·최댓값은 해당 토픽 댓글의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며, 언어 간 절대 비교보다는 각 언어 댓글 공간 내부의 반응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함. 좋아요 분포가 극단적으로 우편향되어 있어 대부분 토픽의 중앙값은 0~1에 머무르며, 평균과 최댓값의 격차는 소수 댓글에 반응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줌.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영어 댓글의 가족문화 코드 토픽이다. 이 토픽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소수 토픽이지만, 평균 좋아요는 686.2로 영어 댓글 집합 내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 평균값은 해당 토픽의 댓글이 전반적으로 고른 호응을 받았음을 뜻하지 않는다. 토픽의 중앙값은 0인 반면, 최댓값은 204,000에 이른다. 즉 이 토픽의 높은 평균은 다수 댓글이 고르게 공명한 결과라기보다, 웨딩 장면의 가족문화 코드를 다룬 소수 댓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스페인어 댓글에서도 가족문화 토픽은 전체의 1.2%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평균 좋아요 4.8, 중앙값 0, 최댓값 263으로 나타났다. 양쪽 모두 빈도는 낮았지만, 영어 댓글에서는 특정 댓글에 반응이 강하게 집중되는 양상이,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반응이 확인된다. 다만 앞서 밝혔듯 두 공간의 좋아요 절대 규모는 채널 노출과 참여 규모, 댓글 언어의 접근성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 차이는 각 공간 내부의 반응 구조로 해석한다.

따라서 공명도는 두 언어 댓글 공간 사이의 절대적 반응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라기보다, 각 언어 댓글 공간 내부에서 어떤 토픽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보조 지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어 댓글에서는 가족문화 코드, 자기 믿음 메시지, América 재정의와 같은 토픽이 내부적으로 높은 공명도를 보인 반면,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가족문화 인식과 범라틴 정체성 토픽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얻었다. 다음 절에서는 빈도와 내부 공명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각 언어 댓글 공간에 나타난 패턴을 마르틴-바르베로의 매개 개념을 통해 해석한다.

2. 문화적 매개의 흔적: 마르틴-바르베로의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IV장 1절에서 확인된 결과를 마르틴-바르베로의 매개 개념을 통해 해석한다. 앞 절이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서 서로 다른 토픽 구조와

내부 공명도 양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면, 본 절은 그러한 차이가 어떠한 문화적 기억, 해석 자원, 인정의 언어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마르틴-바르베로의 관점이 유효한 이유는 그가 수용을 텍스트와 개인의 일회적 만남으로 보지 않고, 생활세계 속에 축적된 문화적 기억과 해석 문법이 작동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본 논문은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의 차이를 작성자의 고정된 문화 정체성의 직접적 차이로 해석하기보다, 동일한 퍼포먼스가 각 언어 댓글 공간에서 어떤 일상성, 문화적 해석 자원, 인정의 언어를 통해 의미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가족적 일상성(cotidianidad familiar), 문화적 역량으로 개념화된 문화적 해석 자원(competencia cultural), 인정(reconocimiento)의 순서로 이러한 패턴을 검토한다.

가족적 일상성의 개념은 웨딩 장면에 대한 상이한 공명 구조를 해석하는 하나의 설득력 있는 틀을 제공한다. 영어 댓글의 가족문화 코드 토픽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소수 토픽이지만, 일부 댓글이 20만 회를 넘는 좋아요를 받으며 영어 댓글 집합 내부에서 강한 반응을 이끌어낸 사례를 포함하였다. 반면 스페인어 댓글의 동일 토픽은 유사한 빈도를 보였음에도 그러한 폭발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웨딩 장면을 라틴아메리카적 일상성의 익숙한 코드로 명명하는 발화가 중심을 이루었다. 마르틴-바르베로(1987, 233-234)에 따르면 가족적 일상성은 대중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세계의 문법이며, 수용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매개 공간이다. 그는 이러한 매개가 수용의 맥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에도 흔적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웨딩 장면의 가족 모임과 의자에 걸쳐 잠든 아이의 모습이 특별한 기호라기보다 익숙한 일상성의 일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장면은 강한 발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보다 친숙한 생활세계의 코드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영어 댓글에서는 동일한

장면이 두 갈래의 해석 경로를 통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all of us in the childhood"(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 모습)와 같이 라틴이라는 특수성을 넘어 유년의 보편적 경험으로 흡수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representing true Hispanic parties"(전형적인 히스패닉 파티를 보여준다)나 "I had no idea that kids sleeping on chairs at weddings was also a Hispanic experience"(결혼식에서 아이들이 의자에 기대 잠드는 것이 히스패닉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와 같이 라틴/히스패닉 문화 코드를 외부 시점에서 발견하는 방식으로 의미화되었다. 두 갈래 모두 라틴 가족문화에 대한 직접적 친숙함이 전제되지 않는 발화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강한 발견과 공감의 계기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친숙한 일상성의 언어와 발견으로서의 일상성이 동일한 텍스트에 서로 다른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적 역량, 즉 문화적 해석 자원의 개념은 동일한 기표와 장면이 왜 서로 다른 의미 체계 속에 배치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마르틴-바르베로(1987)는 문화적 역량이 공동체의 기억에 기대어 작동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기억에서 살아간다(vive de la memoria)'는 표현으로 설명하였다(240-241, 247). 이 개념은 앞 절에서 확인된 두 가지 현상을 특히 잘 설명한다. 먼저, 토픽 구조 자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영어 댓글에서는 공연 찬사 토픽(토픽 0)이 약 52%를 차지했고,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공연 호평(토픽 0)과 범라틴 정체성 확인(토픽 1)이 37~38%대의 거의 같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페인어 댓글에서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미국적 엔터테인먼트 장르로만 해석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스페인어 댓글의 발화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동시에, 그 안에 드러난 식민주의 역사, 범라틴 연대,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위치와 같은 코드들을 함께 해석하였다. 반대로 영어 댓글에서는 이러한 코드가 전면적 수용 구조를 형성하기보다, 일부 토픽이나 해설형 반응 속에서 부분적으

로 드러난다. 이 차이는 특정 집단이 더 우월한 해석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기보다, 각 댓글 공간에서 동원되는 문화적 해석 자원이 무엇을 '주요한 코드'로 부각시키는가의 차이를 보여준다.

나아가, 문화적 해석 자원은 동일한 기표의 차등적 해석을 설명한다. 배드 버니의 "아메리카" 호명 장면이 영어 댓글에서 미국 중심 용법에 대한 교정 요청으로 받아들여진 반면, 스페인어 댓글에서 집합적 정체성을 수행하고 확인하는 장치로 작동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영어 댓글에서 이 장면은 우선 "아메리카 = 미국"이라는 익숙한 용법에 대한 환기와 교정의 계기로 조직된다. 따라서 반응은 '지리 수업', '교정', '새로운 인식'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반면 스페인어 댓글 내에서 "아메리카"는 오랫동안 미국 중심 질서 속에서 의미가 독점되어 온 기표이며, 동시에 범라틴 연대와 역사적 소속감을 호출하는 상징이다.

푸에르토리코 관련 무대 상징 역시 같은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어 댓글에서는 전봇대, 전력망, 사탕수수밭과 같은 요소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공유하는 해설형 반응이 나타난 반면,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리키 마틴의 가사, 하와이 비유, 깃발과 같은 상징이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주의 역사와 라틴아메리카의 구조적 경험을 환기하는 코드로 수용되었다. 이는 문화적 해석 자원이 동일한 기호를 어떤 공간에서는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공간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곧, 차이는 기호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기호를 해독하는 데 작동하는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문법의 분포에 있다. 한편 스페인어 댓글에서만 독립적으로 나타난 여성·젠더 수용 토픽(토픽 8)은, 공연을 식민성과 이민 정치뿐 아니라 여성의 자율성이라는 코드로도 읽어내며 해석 자원의 다층성을 보여준다.

인정의 개념은 스페인어 댓글에서 반복되는 자기확인과 공동체적 소속감

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앞서 범라틴 정체성 토픽(토픽 1)은 3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평균 좋아요는 3.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정체성 관련 반응이 소수의 고반응 댓글에 집중되었다면, 이를 상징적 지지나 수사적 찬사로 제한해 해석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연을 국기 이모지와 함께 재현하는 댓글, 라틴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 표현, 라틴아메리카인 공동체 개념에 대한 언급이 다수의 댓글 속에 분산되어 반복된다. 마르틴-바르베로(1987, 243)에게 인정은 텍스트를 매개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스페인어 댓글의 발화들은 슈퍼볼이라는 미국 중심 미디어 이벤트 위에 재현된 라틴 정체성을 댓글 공간에서 다시 수행함으로써, 그것을 자기확인의 사건으로 재생산한다. 여기서 공명의 분산 구조는 인정이 다수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마르틴-바르베로가 바리오(barrio)를 공식 사회의 익명성에 맞서 자신이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는 공간으로 분석한 점(Martín-Barbero 1987, 232)을 고려하면, 유튜브 댓글 공간은 스페인어 댓글 작성자들이 범라틴 정체성을 상호적으로 호명하고 가시화하는 담론적 공간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디지털 공간의 인정은 물리적 바리오의 대면성과는 다르며, 익명성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다수가 각자의 언어로 참여하며 서로의 존재를 승인한다는 점에서 인정의 상호 논리가 작동한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영어 댓글에서 라틴 정체성에 대한 공감이나 연대의 발화가 부재했다는 뜻은 아니다. 영어 댓글은 대체로 감탄, 교정, 해설, 학습의 프레임을 통해 조직된 반면, 스페인어 댓글은 라틴아메리카인 공동체, 국가명, 국기 이모지, 푸에르토리코 정체성 등을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었다. 배드버니가 무대 위에서 라틴 정체성을 가시화했을 때,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이를 자신의 문화적 소속과 연결해 재호명하

는 발화가 두드러졌고, 영어 댓글에서는 그것이 감상, 학습, 교정, 혹은 연대의 대상으로 의미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인정은 누가 그 정체성을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앞 절에서 확인된 의미화 패턴의 차이는 개별 수용자의 취향 차이나 단순한 정보량의 차이로만 환원되기 어렵다. 가족적 일상성은 동일한 웨딩 장면이 각 언어 댓글 공간에서 보편적 유년 기억, 히스패닉 가족문화에 대한 발견, 라틴아메리카적 일상성의 확인이라는 서로 다른 언어로 조직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문화적 해석 자원은 América 호명, 전봇대, 사탕수수밭, 깃발, El Apagón과 같은 기호들이 각 댓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기억과 지식의 체계 속에 배치되는 방식을 해석하게 한다. 또한 인정의 개념은 스페인어 댓글에서 범라틴 정체성과 푸에르토리코 정체성이 반복적으로 호명되고 가시화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를 댓글 작성자의 고정된 문화 정체성의 직접적 증거로 보기보다 영어와 스페인어 댓글에 서로 다르게 남겨진 문화적 매개의 흔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취한다.

Ⅴ. 결론

이상의 연구는 배드버니의 2026년 슈퍼볼 LX 하프타임 공연에 대한 유튜브 최상위 댓글 149,402개 가운데 영어 댓글 70,627개와 스페인어 댓글 23,448개를 중심으로, 두 언어 댓글 공간의 토픽 구조와 의미화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BERTopic 분석과 대표 댓글 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영어 댓글에서는 공연 자체에 대한 찬사와 감탄이 중심이 되는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반응이 두드러진 반면,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공연 호평과 범라틴 정체성을 확인·수행하는 발화가 공존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작성자의 고정된 문

화 정체성의 직접적 차이라기보다, 각 언어 댓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화적 기억, 해석 자원, 인정의 언어와 관련되어 있었다. 마르틴-바르베로의 가족적 일상성, 문화적 역량으로 개념화된 문화적 해석 자원, 인정 개념은 동일한 공연 요소가 각 언어 댓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되는 양상을 해석하는 데 유효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특히 웨딩 장면의 가족 문화 코드 토픽은 특정 문화 코드가 한쪽 댓글 공간에서는 보편적 유년 기억이나 히스패닉 문화에 대한 발견으로, 다른 댓글 공간에서는 라틴아메리카적 일상성의 확인으로 의미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이 갖는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마르틴-바르베로의 매개 이론이 텔레비전 수용의 민족지학적 연구라는 본래의 맥락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의 초국적 수용 자료를 해석하는 데에도 유효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낮은 빈도에도 일부 댓글이 높은 공명도를 보인 토픽, 동일한 기표가 언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 사례, 그리고 다수의 댓글 속에 반복적으로 분산된 정체성 표현은 단순한 토픽 분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이 점에서 매개 개념은 수용의 차이가 텍스트 자체만이 아니라 댓글 공간에 호출되는 생활세계의 기억과 문화적 해석 자원을 통해 조직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나아가 본 논문은 라틴아메리카의 이론적 전통과 계량 텍스트 분석을 결합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마르틴-바르베로의 매개 이론에 기반한 기존 연구가 주로 민족지학적 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어 온 가운데, BERTopic과 공명도 분석, 대표 댓글의 해석적 검토가 매개의 형성 과정을 직접 관찰하지는 못하더라도, 댓글 담론에 남은 거시적 흔적을 해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계량 텍스트 분석의 결과를 기술적인 주제 분류에 머물지 않고, 문화적 매개의 작동 양상을 해석하는 자료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배드버니의 슈퍼볼 공연 사례는 라틴아메리카 대중문화의 초국적 수용이 단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언어별 댓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의미화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 무대에서 라틴 문화가 가시화되었을 때, 영어 댓글에서는 감탄과 해설, 교정의 반응이 두드러진 반면, 스페인어 댓글에서는 공연 호평이 범라틴 정체성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발화와 결합되었다. 특히 국가명, 국기 이모지, 라틴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이 반복적으로 표현된 점은 이 공연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뿐만 아니라 자기확인의 언어가 수행되는 장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틴-바르베로가 말한 '대중적인 것 안에서 우리를 호명하는 민중적인 것(lo popular que nos interpela desde lo masivo)'은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해석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해석은 거시적 차원에서 관찰된 댓글 분포와 공명 구조, 대표 발화에 대한 이론적 해석에 기반한 것이며, 개별 수용자의 삶 속에서 매개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직접 관찰한 것은 아니다. 마르틴-바르베로가 매개가 담론에 흔적을 남긴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댓글 공간에 나타난 담론적 표지를 거시적 패턴으로 식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으로부터 매개의 형성 과정을 추론하는 것과 과정 자체를 실증적으로 관찰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

또한, 언어 기반 분류는 문화적 정체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영어로 작성된 댓글 가운데 라틴아메리카 문화 맥락에 익숙한 수용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스페인어 댓글 내부에도 지역, 세대, 이주 경험, 정치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어 댓글과 스페인어 댓글의 구분은 고정된 문화적 경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논문에서 공명도로 사용한 평균 좋아요 수 역시 댓글 작성자의 정체성이나 수용 강도를 직접 보여주

는 지표가 아니다. 좋아요 수는 댓글을 접한 불특정 이용자의 사후적 반응이며, 알고리즘 노출, 댓글 작성 시점, 댓글 언어의 접근성, 이용자 참여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명도는 각 언어 댓글 공간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얻은 토픽을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 보조 지표로 이해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계량 텍스트 분석과 민족지학적 방법론을 결합한 혼합 연구 설계가 유효할 것이다. 대규모 데이터에서 매개의 거시적 패턴을 식별한 뒤, 특정 수용자 집단에 대한 심층 인터뷰나 참여 관찰을 통해 매개가 작동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순차적 설계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이 글이 마르틴-바르베로의 1987년 초판에서 제시된 첫 번째 매개 지도에 주로 기대고 있지만, 이후 1998년 5판에서 보완적으로 제시된 두 번째 매개 지도(Martín-Barbero 1998)의 기술성(tecnicidad) 개념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적 매개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댓글 정렬 방식, 가시성의 편향이 수용의 공명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성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매개 이론의 디지털 확장에서 중요한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은영/박정원(2022),「트럼프 이후의 라티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2021)>와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이베로아메리카 연구』, Vol.33, No.1, pp.137-161.

안순태/임유진/이하나(2020),「온라인 먹방(먹는 방송, Mukbang)의 댓글 연구: 식행동 관련 인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한국언론학보』, Vol.64, No.2, pp.269-310.

윤호영(2021),「지상파, 종편 뉴스 및 보수우파 유튜브 댓글 분석: SVM 텍스트 분류와 Glove 방법의 적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3, pp.1399-1416.

이은아(2016),「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정체성 담론」,『이베로아메리카 연구』, Vol.27, No.2, pp.173-200.

최순욱/최성인/이재현(2020),「유튜브에서의 뮤직비디오 팬덤 분석: BTS M/V의 시청, 댓글 상호작용, 밈 영상 제작」,『한국언론학보』, Vol.64, No.1, pp.7-45.

Baek, Young Min(2015),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tance and Cross-Cultural Music Video Consumption on YouTube",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Vol.33, No.6, pp.730-748.

Barreiro León, Bárbara(2025), "Cultural Identity, Colonialism, and Gentrification in Puerto Rico: Bad Bunny's El Apagón as a Case Study", *IASPM Journal,* Vol.15, No.1, pp.151-164.

Burgess, Jean and Joshua Green(2018), *YouTube: Online Video and Participatory Culture,* 2nd ed., Cambridge: Polity Press.

Dietz, James L.(1986), *Economic History of Puerto Rico: Institutional Change and*

Capitalist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delmann, Achim and John W. Mohr(2018), "Formal Studies of Culture: Issues, Challenges, and Current Trends", *Poetics,* Vol.68, pp.1-9.

Egger, Roman and Joanne Yu(2022), "A Topic Modeling Comparison Between LDA, NMF, Top2Vec, and BERTopic to Demystify Twitter Posts", *Frontiers in Sociology,* Vol.7, Article 886498.

Grootendorst, Maarten(2022), "BERTopic: Neural Topic Modeling with a Class-based TF-IDF Procedure", arXiv, https://arxiv.org/abs/ 2203.05794 (2026.04.20).

Grosfoguel, Ramón(2003), *Colonial Subjects: Puerto Ricans in a Global Perspectiv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all, Stuart(1980), "Encoding/Decoding", in Stuart Hall, Dorothy Hobson, Andrew Lowe and Paul Willis(eds.),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pp.128-138.

Lopes, Maria Immacolata Vassallo de(2018), "Barberian Theory of Communication", *MATRIZes,* Vol.12, No.1, pp.39-63.

Lopes, Maria Immacolata Vassallo de, Silvia Helena Simões Borelli and Vera da Rocha Resende(2002), *Vivendo com a Telenovela: Mediações, Recepção*, Teleficcionalidade, São Paulo: Summus.

Martín-Barbero, Jesús(1987), *De los Medios a las Mediaciones: Comunicación, Cultura y Hegemonía,* Barcelona: Gustavo Gili.

Martín-Barbero, Jesús(1998), *De los Medios a las Mediaciones: Comunicación, Cultura y Hegemonía,* 5ª ed., Bogotá: Convenio Andrés Bello.

Martín-Barbero, Jesús(2002), "Tecnicidades, Identidades, Alteridades: Des-ubicaciones y Opacidades de la Comunicación en el Nuevo Siglo",

Diálogos de la Comunicación, No.64, pp.9-24.

Martín-Barbero, Jesús and Sonia Muñoz(eds.)(1992), *Televisión y Melodrama: Géneros y Lecturas de la Telenovela en Colombia,* Bogotá: Tercer Mundo Editores.

Meléndez, Edwin and Edgardo Meléndez(eds.)(1993), *Colonial Dilemma: Crit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Puerto Rico*, Boston: South End Press.

Mohr, John W., Robin Wagner-Pacifici, Ronald L. Breiger and Petko Bogdanov (2013), "Graphing the Grammar of Motives in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Cultural Interpretation, Automated Text Analysis and the Drama of Global Politics", *Poetics,* Vol.41, No.6, pp.670-700.

Monroe, Raquel(2021), "Beyoncé's Super Bowl Spectacles and Choreographies of Black Power in the Movement 4 Black Lives", *Dance Research Journal,* Vol.53, No.2, pp.161-176.

National Football League(2026), "Bad Bunny's Apple Music Super Bowl LX Halftime Show",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6FuWd4wNd8 (2026.03.15).

Pacini Hernandez, Deborah(2010), *Oye Como Va!: Hybridity and Identity in Latino Popular Music,*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érez-Rufí, José Patricio(2026), "Media Event and Latin Performance: Bad Bunny at Super Bowl LX and the Symbolic Reconfiguration of 'America'", Zenodo, https://doi.org/10.5281/zenodo.18560580 (2026.04. 20).

Reuters(2025.04.16.), "Puerto Rico Goes Dark After Widespread Power Plant Failure",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 /puerto-rico-goes-dark-after-widespread-power-plant-failure-2025-04-16/ (2026.04. 20).

Reuters(2026a.02.02), "Bad Bunny Says 'ICE Out' During Grammy Awards Acceptance Speech",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media-telecom/bad-bunny-says-ice-out-during-grammy-awards-acceptance-speech-2026-02-02/ (2026.04.20).

Reuters(2026b.02.09), "Trump Says Bad Bunny's Super Bowl Halftime Show Was 'Absolutely Terrible'",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says-bad-bunnys-super-bowl-halftime-show-was-absolutely-terrible-2026-02-09/ (2026.04.20).

Rivera-Rideau, Petra R. and Vanessa Díaz(2025), *P FKN R: How Bad Bunny Became the Global Voice of Puerto Rican Resistan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Santana, Jannsen, Flavia Cardoso and Belinda Zakrzewska(2026.02.11.), "How Bad Bunny Brought Activism to the Super Bowl Stage",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how-bad-bunny-brought-activism-to-the-super-bowl-stage-275599 (2026.04.20).

Scolari, Carlos A.(2015), "From (New) Media to (Hyper) Mediations: Recovering Jesús Martín-Barbero's Mediation Theory in the Age of Digital Communication and Cultural Convergenc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18, No.9, pp.1092-1107.

Serazio, Michael(2013), "The Elementary Forms of Sports Fandom: A Durkheimian Exploration of Team Myths, Kinship, and Totemic Rituals", *Communication & Sport,* Vol.1, No.4, pp.303-325.

Varas-Díaz, Nelson, Sheilla Rodríguez-Madera and Daniel Nevárez Araújo(eds.)(2025), *The Bad Bunny Enigma,* Lanham: Lexington Books.

<국문요약>

2026년 배드버니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 무대에서 라틴 재현, 푸에르토리코 정체성, 이민정치가 상징적으로 경합한 사건이었다. 이 글은 마르틴-바르베로의 문화적 매개 이론을 바탕으로, 해당 공연이 NFL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어 및 스페인어 댓글에서 어떻게 의미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영어 댓글 70,627개와 스페인어 댓글 23,448개를 대상으로 BERTopic 토픽 모델링, 공명도 분석, 대표 댓글의 해석적 독해를 결합하였다. 분석 결과, 영어 댓글은 공연을 주로 대중적 엔터테인먼트로 의미화한 반면, 스페인어 댓글은 공연에 대한 호평을 범라틴 정체성의 확인과 결합하였다. 동일한 공연 요소 또한 두 언어 댓글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적 일상성, 문화적 역량으로 개념화된 문화적 해석 자원, 인정의 매개를 통해 해석될 수 있으며, 초국적 수용이 고정된 문화 정체성의 차이로 환원되기보다 언어별 댓글 공간에 나타난 문화적 기억, 해석 자원, 인정의 언어를 통해 의미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배드버니, 슈퍼볼 하프타임 쇼, 라틴 정체성, 문화적 매개, 유튜브 댓글 수용

▌논문투고일자: 2026년 05월 07일
▌심사완료일자: 2026년 06월 02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06월 09일